

부산지역 직업병감시체계 구축

연구책임자/ 김 진 하
공동연구원/ 강 동 목 외 7명

부산지역 직업병 감시체계는 2001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병원 산업의학과를 중심으로 수지진동증후군,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직업성 암(폐암을 중심),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 감시체계에서 시작하여 2003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1개 병원이 참여하고(직업성 피부질환이 추가됨) 이후 2003년도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보다는 부산지역만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를 운영되고 있다.

직업성 폐암은 3차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호흡기 내과, 혈액종양 내과, 치료방사선과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신규입원 환자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환자 현황과 진단명을 확보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감시체계에서는 직업성 폐암에 대해서는 직접 새로

입원하는 환자 전원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직업성 천식은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내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감시하거나 특수건강진단을 이용하였다. 천식은 메타콜린 유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 1주 간격으로 장부를 확인하여,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감시체계는 감시체계 본부와 산업위생팀 및 각 대학병원의 산업의학과, 호흡기내과 및 작업환경측정팀의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직업성 폐암은 총 66명(15.3%)이(Possible 이상) 감시체계에 보고하였다. 2005년 부산지역감시체계에서 보고된 54명(20.22%)에(Possible 이상)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작업관련성이 높음과 확실함은 2005년의 21명(7.86%)에 비하여 2006년은 49명(11.4%)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볼 때는 11.4%(49례)가 작업관련성 확실(Definite) 또는 작업관련성 높

음(Probable)으로 분류되어 약 10% 정도가 작업과 관련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직업성 천식은 2002년, 2003년도에 16, 17례, 2004년도 1례가 보고되었던 것에 비해 2005년도는 4례, 2006년도에서도 3례로 직업성 천식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전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직업성 천식의 환례는 니켈, 이소시아네이트(TDI) 그리고 알루미늄 또는 금속유와 관련이 있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총 89례로, 2005년도의 91례로 지속적으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추간판탈출증이 29례로 가장 많았다. 보고된 환례 중 3례가 작업관련성이 확실함(Definite)으로 보고하였다.

기타 질환은 총 31례로 뇌심혈관계 질환 10례(32.3%), 피부질환 8례(25.8%), 납중독

6례(19.4%), 중독성 뇌병증 2례(6.5%), 감염 질환 2례(6.5%), 안면신경마비, 전격성 간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1례(3.2%)를 보고하였다.

보고된 환례 중 작업관련성이 가능성 높음이 18례(58.1%), 가능성 있음이 13례(41.9%)로 보고되었다.

부산지역 감시체계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산재보험 자료 등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여 직업병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나아가 정책에 반영되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감시체계 연구사업이 지속될 경우 정보가 축적되면서 근로자, 사업주 및 산학연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아질 것이므로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연구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효과가 증대 될 것이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